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 1~2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6

지구윤리와 종교교육

송 병 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요약》

지구에 인간이 생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자체가 문제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구촌 시대의 도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지구 생태계의 파괴, 종교적 이름의 폭력과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침략전쟁과 테러,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남반구와 북반구의 불균등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빈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인간성 파괴·물질주의·인간소외, 급격한 사회변동이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 등은 지구적 차원의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증후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인간에 의해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지구촌은 언제 재앙이 덮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지구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교육을 통하여 지구윤리를 실천할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의 관계를 논의한다. 지구윤리는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거나 상부구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와 철학들의 특정한 윤리에 편중되어서도 안된다. 지구윤리는 인류공동의 미래에 대한 관심에 기초해야 한다. 지구윤리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시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지구적 책임과 권리의 공유와 실천을 위한 필요한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의 문제는 인간의 의식개혁과 가치관 문제에 직결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정사정 없이 위협받고 부서지는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인류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희망을 가지면 지구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지구를 자연으로 보면 더욱 아름답다. 지구윤리 실천을 위한 지구촌 시대의 종교교육은 인류가 희망을 갖고 지구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인간, 종교, 지구촌, 지구차원의 문제, 지구윤리, 가치관, 종교교육

I. 서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언제까지 인류가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 그들 생명체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생명체로서 ‘나’는 ‘우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러한 새로운 세상은 실현 될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세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인류의 역사는 ‘그 새로운 세상’ 만들기 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다.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며 농사를 짓고 기도를 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이론과 주장은 많은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밝혀진 것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한번 왔다가는 인생길인데 오리무중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

필자는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누가 필자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모른다.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다. 필자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를 모른다. 필자가 아는 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우리라는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비겁한 것도 하고 악한 짓을 할 줄도 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다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예사롭게 하기도 한다.

인간은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선하기만 하다면 종교는 필요 없다. 인간이 선과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오묘하면서도 복잡하고 신비하기까지 해서 불가사의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지구에 사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인간은 별 짓을 다하는 동물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면서도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털이나 피부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는다. 참으로 무모하다 할 정도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다고 해도 개처럼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빠르게 멀리 달릴 수도 없다. 황소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도 못한다. 물고기처럼 물 속에 오래 머물 수 없으며 독수리처럼 멀리 보며 창공을 자유롭게 날지도 못한다. 개체로 보면 인간은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인류는 개보다 훨씬 냄새를 잘 맡는 도구를 만들었고 말보다 빠르고 멀리 가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어 물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의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일까? 신(창조주)의 섭리일까? 욕심이 많아서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학습의 가능성과 창조의 가능성이 원초적 불안과 욕망과 함께 결부되어 만들어지는 인간만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문화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신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 수도 있고, 물질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인간을 질적으로 다르게 만든다.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인류는 정신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점점 빠른 속도로 물질의 노예처럼 되어가고 있다.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학자, 예술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물질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물질숭배자가 된다는 말은 상업주의에 패배한다는 말이 되고 상업주의에 패배한다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말과 같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기 때문에 흔히 대중(mass)으로 불리는 사회구성원은 돈이 되는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있다. 그들의 물질추구는 지극히 정상일지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확립되기 어렵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 더욱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특히 황금만능풍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질문명은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달하기 어렵다. 좋게 말해서 이용이지 실제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짓는 일, 공장을 세우는 일, 도로를 닦고 댐을 건설하는 일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전개되어온 지구촌시대가 자본을 위한 세계화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속성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보다 쉽게 더 많은 자본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인간가치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탐욕과 폭력 앞에서는 생명이 죽고 자연이 죽고 인간성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구적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가치의 실현을 근원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지구윤리문제를 논의한다.

II. 지구촌시대의 도래와 지구차원의 문제

지구촌시대의 도래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촌시대란 지구화(또는 세계화, globalization)의 의미를 내포한다. 지구촌시대는 무엇보다 먼저 국가 단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민족 또는 국민국가의 개념을 재해석하게 한다. 지구촌시대의 도래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또는 국민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지구촌시대를 선도한 것은 경제부문이지만 이것을 빠른 속도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정보화가 일등공신이다. 정보화는 기계 기술로부터 정보기술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인류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구촌시대로의 변화는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가치관 등의 변화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국가단위의 경제구조는 와해되어 세계 단위의 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생활공간은 지구전체로 확대되어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어 국가의 통제력이 위축되고 문화교류와 접촉이 빠르게 증폭되어 문화충돌과 문화동질화 현상이 진행됨으로써 끊임없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과 위성방송은 이를 가속화시켜 사람들의 가치관을 급속하게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문제를 지구적 차원에서 염려하고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지구촌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인류는 서로 이웃하며 함께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인류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류공동의 삶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누구나 지켜야 할 삶의 법칙 같은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일부 신학자와 종교인들이 인류공동의 윤리와 이의 실천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지구촌시대에는 지역적이고 폐쇄적인 독선적 윤리나 진리주장은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고 지구윤리 제안자들은 주장한다. 인류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지구생태계 파괴, 싸움질,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문제 등은 전체인류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다.

1. 생태계 파괴와 지구윤리

지구에 인류가 등장한 것은 약 300만 년 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300만 년 동안 지구는 수많은 재앙과 환경변화를 거듭해 왔다.¹⁾ 그동안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가 멸종을 당했다. 현재 지구는 그 어느 때 보다 생명체의 멸종이 절정기로 치닫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급속한 환경변화 때문이다. 현재의 멸종속도가 지속된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3분의 2정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주장도 있다.

“지구에서는 다시 한번 아주 소수의 쥐, 잡초, 바퀴벌레, 모기 등과 같은 생명이 끈질긴 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람의 큰 체구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멸종의 시기에는 체구가 크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뜻한다. …… 도시에 집중해 사는 인간의 거주형태는 과거에 덩치가 큰 동물종이 거주 제한이라는 늪에 갇혀 멸종된 것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환경에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아 쉽게 멸종의 늪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²⁾

이러한 전망은 우리에게서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전망대로 되지 않도록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만일 인류가 산업폐기물, 특히 우주로의 열방출을 막는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현상은 계속되

1) Art Bell, Whitley Strieber, *The Global Superstorm*, 오재호, 《더위지는 지구 얼어 붙는 지구》, 서울: 아르케, 2001, 130쪽.

2) 위의 책, 151 ~ 152쪽.

고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공장들과 자동차들은 너무 많은 오염물질들을 대기로 내뿜어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먹이사슬에 쉬지 않고 화학폐기물을 투입하여 생태계의 파괴와 나아가서 생명체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다. “엘리노현상”의 영향으로 무시무시한 폭풍과 기후 이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구적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비롯된 지구촌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환경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남극 대륙의 높은 상공에서 오존층이 얇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구멍이 뚫렸다. 오존층이 사라지면 엄청난 자외선이 여과없이 지표면에 그대로 도달하게 되어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에 노출된 동물들은 시각장애, 피부암, 면역결핍 그리고 유전자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³⁾

2005년 3월 밀레니엄생태계평가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지구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기상변화, 새로운 질병 출현, 동·식물 멸종, 산림훼손, 수질 오염 등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지구 생태계의 3분의 2가 손상되거나 고갈되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⁴⁾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를 종합할 때, 지구생태계 파괴는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자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구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류 스스로 자연관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구인 모두의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2. 싸움질(전쟁·분쟁·테러)과 지구윤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싸움질을 빼버리면 남을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인간사회는 언제나 싸움판이었다. 싸움의 양상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원시사회에서의 싸움, 종교전쟁, 청일전쟁, 세계 제1차 전쟁, 세계 제2차 전쟁, 한국전쟁, 월남전쟁, 미국의 9.11테러 전쟁,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각각 싸움의 양상이 다르다. 싸움의 목적과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구는 지금도 싸움판이다.

싸움질에는 개싸움, 소싸움 같은 싸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전쟁,

3) 위의 책, 133쪽.

4) 〈지구생태계 40% 밖에 안 남아〉, 《조선일보》, 2005년 4월 1일자.

분쟁, 테러를 말한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직접적인 폭력행사이고, 분쟁은 국가내부에서 민족과 민족 또는 종교와 종교 사이에 벌어진 직접적인 폭력행사이며 테러는 개인 또는 조직의 소규모 무력행사를 뜻한다.”⁵⁾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지역분쟁은 약 120건인데, 이 가운데 90건이 냉전 후에 발생했다. 최근 100년 동안 전쟁 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없었고 테러는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20세기에만 해도 약 1억 78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⁶⁾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수억 명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쟁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리고 사령관은 잘 죽지도 다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때 약 452만 명이 사망했지만 남북 최고위 지도자들은 피한방을 홀리지 않았다. 현대전에서는 병사들조차도 희생시키지 않는 작전을 펴고 있다. 냉전 종식이후 미국은 1993년 소말리아 파병실패이후 가급적 지상전을 피하고 공습에 전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한 군인 사상자 수는 민간인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또한 전쟁이나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은 침략하는 자들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테러리스트들의 제거, 인권, 평화, 주민보호,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서가 아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거나 ‘정치적 게임’이다. 나아가 전쟁의 피해자가 대부분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인권, 주민보호, 민주주의 실현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말처럼 모순적이고 거짓인 말이 어디 있는가?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누가 사기꾼인가를 제대로 알고 사기꾼과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울 때는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전쟁과 관련하여 종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지구에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적인 삶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원초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인생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생각들도 다양하다.

종교를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적인 자세로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고도로 단련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란 일반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절대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감을 갖

5) 세계 정세를 읽는 모임 지음, 박소영 옮김, 《지도로 보는 세계분쟁》, 서울: 이다미디어, 2005, 14쪽.

6) 위의 책, 16쪽.

고 존경하고 숭배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겉으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종교에 해당하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고 부른다. 1998년 유엔에서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전해진 대승 불교와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퍼진 소승불교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자수는 약 3억 5천 3백 명이고,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로 신자가 약 20억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가톨릭이 약 10억 4천만 명이다. 세계에는 약 12억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신자숫자가 많은 순으로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도 무슬림이 많은데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한다.⁷⁾ 세계 3대 종교 이외에 힌두교, 유교, 도교, 시크교, 유대교 등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종교 신자수는 약 45억 이상에 이른다.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하다. 종교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촌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몇몇 종교는 지구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서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큰 비극이다. 중동사태를 보면서 과연 인간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라는 세 종교는 예루살렘을 공동성지로 하고 있다. 모세를 예언자로 삼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비판하고 인류 전체의 구제를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예수가 죽은 지 600여년 후 모하메트를 예언자로 삼으며 탄생한 이슬람교는 한 뿌리에서 나온 종교이다. 세 종교는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을 숭배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으며 최후에 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종말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뿌리부터 상이한 종교는 어떠하겠는가?

종교의 차이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칼날을 맞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류사는 말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교 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치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가 있고, 통치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행동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 소재가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 또는 문화적 차이든 일단 종

7) 위의 책, 32~33쪽.

교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분쟁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쉽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는 잊혀지고, 이교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이 되는 무서운 종교분쟁이 되는 것이다.⁸⁾ 중동 분쟁이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자세로는 영원히 지상에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교도를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 종교문제는 참으로 어렵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반성하는데 행동으로는 반성하지 않는다. 지구윤리가 세계 종교인들 입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시 말장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종교간의 싸움질은 인간의 편견과 증오심만 키우게 된다. 인간의 편견과 증오심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잔인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편견과 증오심은 상대적이다.

편견과 증오심이 죄 없는 인간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는가? 나치독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편견과 증오심은 테러리스트를 만들어 언제 어디에서 테러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불안케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든다. 원래 테러라는 말은 라틴어로 ‘공포’라는 뜻으로 ‘공포정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적 암살을 뜻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목적만 아니라 무차별 살인이나 비행기 납치 등 광범위한 무력 행위를 뜻한다. 테러리즘은 혁명 혹은 정치개혁을 위한 수단, 반식민지주의나 민족분리·독립주의 등 민족운동을 위한 수단, 서방 세계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산국가의 수단 내지 절망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광신과 맹신으로 인한 원리주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월 20일 사이비교단인 오진리교에 의한 도쿄의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미국에서 유나바머(Unabomber)가 일으킨 우편 폭탄사건, 지구해방전선(ELF)의 콜로라도 주 스키장 파괴사건 등과 같이 광신과 맹신으로 인한 테러가 원리주의 테러라 할 수 있다. 특히 서구형 근대화 정책과 생활양식을 거부하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엄격한 실천을 통해 이슬람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복고주의 운동인 이슬람 원리주의는 미국(9.11테러사건), 아프카니스탄,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도처에서 테러를 일삼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뿐만 아니라 환경원리주의, 민족원리주의, 동물애호를 주장하는 생명원리주의,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기독교 원리주의 등 다양한 원리주의 운동이 탄생해서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냉전 후 시대의 이념대립은 ‘세계화와 원리주의 간의 대립’이라고 주장한다.⁹⁾ 원리주의자들이 일으키는 테러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8) 위의 책, 34~35쪽.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로도 테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각 국의 첩보기관이 암약하며 암살과 같은 테러를 자행하였지만 지금은 국가가 관여한 테러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시리아, 수단을 테러 지원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이란과 시리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거꾸로 미국이야말로 ‘국제테러국가’이며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다. 앞으로 미국과 이들 나라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미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일방적인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9.11테러사건 직후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목한 테러지원국을 향해 “어느 지역의 어떤 국가든 지금 결단을 내려야한다. 우리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가?”라고 통고했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데 형식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매일같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미국의 다음 상대는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북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고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적대 국가와 테러 조직에 대한 선제 공격 방침을 확인한 ‘부시독트린’으로 테러 지원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이 전 세계적 규모의 테러 위협이 현실로 나타난 이 시대에 얼마나 유효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전쟁과 테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구는 인간이 살만한 동산이 되기는 어렵다.

3. 핵무기(대량살상무기)와 지구윤리

그 어느 때 보다도 2005년에 접어들면서 북한 핵문제가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북한에 6~8개로 추정되는 핵탄두가 있다고도 하고, 한 개도 없다고도 한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든 없든, 핵실험을 하든 하지 않든,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관련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의 모임

9) 〈제2핵무기시대〉, 《조선일보》, 2005년 5월 10일자, A14면.

인 6자회담을 지연시키면서 북·미 직접회담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에 겁을 주려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한국과 미국은 겉으로는 겁을 먹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심각성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게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공식·비공식으로 9개 나라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유량의 순서대로 말하면 러시아 16,000개, 미국 10,350개, 중국 400개, 프랑스 350개, 영국 200개, 이스라엘 100-200개, 파키스탄 40-60개, 인도 40-50개, 북한 6-8개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탄두의 95%를 가지고 있다.¹⁰⁾ 이들 국가 중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공공연히 핵보유 국가로 인정된다. 이들 5개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정당한 것처럼 주장한다. 다른 나라의 핵탄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다. 특히 북한 핵탄두 보유에 대해서는 세계가 매우 이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초국가적 테러그룹과 비슷한 성격의 나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초국가적 테러그룹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통제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누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생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 무엇이든 갖고 있으면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핵전쟁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씨까지 말려 지구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지구촌시대에는 어떠한 특정국가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해서 안 된다. UN상임이사국도 마찬가지다. 21세기 지구촌에는 많은 문제가 인류와 지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핵무기이다. 모두가 다같이 끝장을 보지 않으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비롯한 다량살상무기는 당장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그럴 마음만 먹으면 제3세계 국가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가만있겠는가?

1967년에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이 있긴 하지만 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제조 금지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강요할 수 없게 되어있다. 처음부터 조약체결을 거부했거나 탈퇴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에 속하는 생물학무기·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이른바 G8에 속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러시

10) 박소영 옮김, 앞의 책, 43~45쪽.

아가 원칙을 정했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인류가 언제라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지구촌의 운명은 생태계파괴, 전쟁과 같은 싸움질,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을 논의한다.

Ⅲ. 지구윤리와 종교교육

세상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의 도래에 따라 최근 세계의 종교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은 특정 지역문화권에서만 통하던 독선적 윤리나 진리에 대한 주장으로 지구촌의 번영과 인류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범지구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야 할 지구윤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지구 생태계의 파괴, 종교적 이름의 폭력과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침략전쟁과 테러,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문제, 남반구와 북반구의 불균등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빈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인간성 파괴·물신주의·인간소외, 급격한 사회변동이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 등은 지구적 차원의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증후군들이다.

지구윤리는 지구촌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 질서유지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의 역기능이 야기하고 있는 인간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해방’ 내지는 ‘구원’의 철학이 담겨 있는 21세기 초입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계종교회의”에서 천명한 “지구윤리선언”, 국제행동위원회(InterAction Council)의 “인류의 책임에 대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esponsibilities)”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구윤리·종교·교육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스 킹(Hans King)은 “지구윤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지구윤리 구상이라는 저서를 1990년에 출판했다.¹¹⁾

신학자인 그는 이 책에서 인류전체를 위한 윤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근본 윤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결코 한 종교, 한 이념이 아니라, 구속력을 행사하는 규범·가치·이상·목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¹²⁾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11) Hans Küng,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15쪽.

지구적 차원의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어떠한 새로운 세계 질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자극 받아 1993년 9월 4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의 대표들은 종교 역사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지구윤리선언(Declaration Toward a Global Ethic)”을 채택하였다.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지구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지구윤리선언” 서두에 간결하면서도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고통 속에 있다, 그 고통은 너무 광범위하고 급박하여 우리는 그 고통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평화는 우리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고, 지구는 파괴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은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남녀는 서로가 소외되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부당하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겹도록 싫다!¹²⁾

신학자와 세계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종교간 평화는 없다면 서로 다른 문명들 간에 충돌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인식아래 채택한 “지구윤리선언”을 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선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무엇이 인류에 도움이 되고 해로움이 되며, 무엇이 정의롭고 그렇지 않으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위에 다양한 종교의 종교적·윤리적 전통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종교들이 이미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여러 종교의 대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은 나이, 성, 피부색, 육체적·정신적 능력, 언어, 종교, 정치적 관점,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는 것을 역설(力說)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삶의 모든 측면, 가족과 지역사회, 인종, 국가와 종교를 위해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인류가 공감할 윤리가 필요한데 그 윤리를 “세계윤리”라 명명하고 주로 종교간 평화를 중심개념으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 인간적인 대우,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이를 포용해야 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구윤리선언”의 주요 골자이다.¹⁴⁾

12) 위의 책, 17쪽.

13) 한국종교인평화회의·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21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구윤리: 한국종교의 대응》, 서울: 서울평화교육센터, 1993, 88쪽.

14) 위의 책, 17쪽.

14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세계종교지도자들이 “지구윤리선언”을 채택하면서 지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UN의 지구적 통치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와 문화와 발전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등의 두 국제기구의 1995년 보고서들은 지구윤리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었다. 또한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지구윤리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는가 하면, 유네스코에서도 지구윤리의 문제를 국제적 관점에서 주목하였다.¹⁵⁾ 2003년 부다페스트클럽에서도 지구문제를 다각도에서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1997년 9월 1일에, 전임 대통령들과 수상들의 국제행동위원회가 UN에 제안했던 “인류의 책임에 대한 세계 선언”은 세계종교의회의 “지구윤리선언”과 함께 지구윤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책임에 대한 세계 선언”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토대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절대적 기준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그들의 분리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 상호간의 연대성 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자 한다. 만약 인권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곳에서조차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정치적, 윤리적인 의지가 결핍된 것이다.

“모든 인류는 인간답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과, “당신이 당신에게 하여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바탕으로 하는 “지구윤리선언”과 “인류의 책임에 대한 세계 선언”에 나타나 있는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해야 할 지구윤리의 중핵 내용은 첫째, 비폭력 문화와 생명존중으로 헌신 둘째, 올바른 문화생활과 정당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제활동의 헌신 셋째, 관용의 문화와 신뢰의 삶에 대한 헌신 넷째, 평등한 권리의 문화와 남성과 여성사이

15) 세계보편윤리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97년 3월 유네스코 본부인 파리에서 첫 공식모임을 「보편윤리를 위한 개념적, 철학적 기초(Conceptu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Universal Ethics)」라는 주제하에 Karl-Otto Apel, Michael Walzer, Hans Küng, Sissela Bok, Leonard Widler, Jacques Poulain, Shu-Hsien Liu, Karan Singh, Paulin hountondji, Ioanna KuCuradi, Aziz Al-Azmech, Osvaldo Guariglia 등이 참여하였다. 1997년 12월 이탈리아 나폴리(Naples)에서 제2차 모임을 가졌고 한국에서는 UNESCO 주최로 1999년 10월 서울에서 「보편윤리와 아시아 가치」라는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서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의 협력에 대한 헌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생명존중, 성실하고 정당한 삶, 진실된 말과 행동,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지구윤리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류사회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했다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지구촌에서는 인류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어느 특정집단이나 지역·국가의 문제가 지구전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문제의 지구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생태계파괴, 싸움질(전쟁, 분쟁과 테러),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인류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요문제로 인간 생명의 경시와 존엄성 무시, 각종범죄와 폭력, 경제적 불평등, 성차별, 도덕불감증과 질서파괴, 정의와 불의의 모호성, 멋대로 낙인찍기, 전통적 권위의 와해와 인간교육부재, 돈의 노예화 등으로 인한 인간정신의 황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지구화와 함께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사회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들의 일상은 점점 더 정신적인 가난에 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다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현실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힘이 약한 나라의 초라함과 비참함은 또 다른 지구촌 문제이다. 강대국 지도자가 “힘없는 국가의 국민도 힘있는 국가의 국민과 똑같이 존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구윤리문제는 선언만으로는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구윤리는 실천을 한다 해도 강대국의 술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류가 다같이 지켜야만 하는 윤리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초국가적, 초문화적, 그리고 초종교적인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동가치, 규범과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윤리와 종교, 그리고 교육은 강조점이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법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개념이 아니다. 세 개념 모두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윤리와 종교, 그리고 교육은 모두 사람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이들은 모두 인간사회의 질서와 인생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 불교와 같이 세계규모의 윤리성을 갖고 있는 종교를 윤리적 종교라 하고 인간 윤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유교를 ‘종교적 윤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 종교(宗教)를 한자의 뜻풀이대로 말하면, 종교는 ‘교육의 으뜸’이 된다.

그러나 “삶의 법칙”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은 다른 두 개념과는 다르다. 교육은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와 종교를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인격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지식·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다.

지구윤리와 관련할 때 종교교육은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종교적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의 입신 출세와 특정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내용이야 어떻게 구성되는 지구윤리를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서 종교교육은 세계 공통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구윤리와 교육을 주관하는 세계기구가 필요한데 유엔에서 맡을 수도 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촌이 위협받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종교적 차원에서만 지구윤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종교교육은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종교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모든 사람이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 형성과 자질함양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IV. 결론

인간에 의해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지구촌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구촌은 언제 재앙이 덮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4년 12월 쓰나미(tsunami)가 동남아시아 일부 해안을 덮쳐 일순간에 3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대재앙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구적 차원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인류가 지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사태가 별

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개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가끔 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는 있으나 인류가 한꺼번에 죽는 일은 없다.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도 엄청나다.

지구촌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색깔이 다른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 할 수밖에 없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없이는 지구촌 공동체는 결코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지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지구를 인간이 사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들의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 인생관이 달라져야 지구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의 의식혁명이 어렵지만 지름길이다.

지구윤리는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이거나 상부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교와 철학들의 특정한 윤리에 편중되어서도 안되며, 특정 종교에 대하여 편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즉, 토라(Torah), 산상수훈, 코란(Qur'an),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부처의 가르침, 또는 공자의 말씀 그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윤리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 시민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지구적 책임과 권리의 공유와 실천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구윤리와 종교교육의 문제는 인간의 가치관 문제에 직결된다. 인간이 점점 인간과 기계의 혼합형 인간으로 변질되어 가는 지구촌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지구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정사정 없이 부서지는 지구촌에 사는 우린 진정 행복한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인류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희망을 가지면 지구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지구를 자연으로 보면 더욱 아름답다. 지구촌시대의 종교교육은 인류가 희망을 갖고 지구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GBN) 회원들 지음, *What's Next? 2015*, 이주형 옮김, 《What's Next? 2015》, 서울: 청년정신, 2005.
- 박이문, 《자비의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4(1990).
- Art Bell-Whitley Strieber 지음, *The Coming Global Superstorm*, 오재호 옮김, 《더워지는 지구 얼어붙는 지구》, 서울: 아르케, 2001.
- Ervin Laszlo 지음, *You Can Change the World*, 변경옥 옮김, 《You Can Change the World》, 서울: 유토피아, 2005.
- 임상옥, 《윤리이야기》, 서울: 청호, 2004.
- 세계 정세를 읽는 모임 지음, 박소영 옮김, 《지도로 보는 세계분쟁》, 서울: 이다미디어, 2005.
- 최준식, 《종교를 넘어선 종교》, 서울: 사계절, 2005.
- 한국종교인평화회의·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21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구윤리: 한국종교의 대응》, 서울: 서울평화교육센터, 1993.
- Küng, Hans(1990),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_____, *Weltethos für Weltpolitik und Weltwirtschaft*, trans. Bowden, John, *A Global Ethic for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Küng Hans and Kuschel, Karl-Josef, eds., *A Global Ethic: The Declaration of the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London: SCM Press, 1993.

원고접수: 2005년 5월 15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6일

연구자 소개 : 송병순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② 관심영역: 사회문제와 교육

③ 주요논저: 〈이데올로기가 교육의 이론과 실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교육갈등현상의 의미〉, 〈한국사회의 위기와 도덕성 상실〉

④ E-mail: yoson97@chol.com

Global Ethic and Religious Education

Song, Byungsoo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survival of human beings on the earth, there has been constantly a herd of problems on this planet. This may have, in most cases, been due to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problem-causing being.

The advent of global village causes more problems than any other period and jeopardizes human survival. The problems such as ecocide, religious violence, aggressive warfare and terrorism,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blems between the industrialized North and the impoverished South, destruction of humanity due to coup de mai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ide effects of material civilization, materialism, *Entfremdung*, or alienation, the topsy-turvy of values threaten the globe-dimensional survival of humankind. Whether the problems are caused by humankind or not, our global village has numerous problems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 great misfortune befalls human beings. They are vital problems our human society are confronted with and must solve.

With such a point of view, this article raises matters of global ethic, stresses the necessity to practice global ethic through religious education, and then discusses the relation between global ethic and religious education.

A global ethic is neither a new ideology nor a superstructure. Nor should it place too much emphasis on the code of ethics of any specific religion or philosophy. It ought to exist for the future of humanity. This global ethic is essential values that require global responsibility for prosperity and happiness and community of rights and practice of cosmopolitans, or citizens of the world in the 'global village' period; thus it should be in need of the internalization through education.

The matters of global ethic and religious education are directly connected to those of reform of consciousness and values of human beings. We ought to look into our limited life with our socks pulled up. We that live in the global village which faces danger of demolitions should ask ourselves whether we,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feel happy or not. We humanity, without losing our hope,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for the happiness common to us all. If we have hope, our earth will look beautiful. The planet is more beautiful when we watch it in the course of nature. The religious education for practicing a global ethic in the period of global village ought to give a point to look, in hopes, beautifully at earth.

Key Words: human being, religion, global village, globe-dimensional problem, global ethic, values, religious education.